



“로봇도 옷 입는다” ...한세실업, 로봇 의류 수요 선점
국내 첫 로봇 의류 전시 ‘웨어 더 퓨처’ 운영
휴머노이드 의류 기준 확립 방열·고신축 기능성 의류 노하우 집약

코리아경제

한국 봉제산업을 선도하는

Vol. 104



KOWEB INDONESIA
홈페이지
제작 합니다
0812 9354 7052
yoon@koweb-indonesia.com
카카오 ID : rickyoon

오름 (OROM) 컨설팅
ITAS - ITAP - SILVER VISA
PENGIRIAN & DOKUMEN PERUSAHAAN
021-45856898/4207/4911/4910
법인설립 (PMA & PMDN)
SUHADA : 0812-97598638
WINDA : 0811-8821462
visa.orom@gmail.com
www.orom.co.id indocity1991

빠르고 정확한
명함제작
0858 9060 0962
021 5010 4614~5
pt.kwanggaeto@gmail.com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중고 봉제기계, 봉사 및 악세사리, 매 입
PT. SHINHAN GLOBEL
SHIN H. G +62 858 1369 4992
Kakao ID 6shg10

 **재인도네시아 한국 봉제협회**
KOREA GARMENT ASSOCIATION IN INDONESIA

인니 정부, 하반기 26조 루피아 규모 경기부양책 재가동



▲정부의 식량 가격 안정화 프로그램에 따라 저렴한 쌀을 구입하는 주민들/ 2024.2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내수 경기와 소비를 부양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각종 소비 진작책을 재도입하기로 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3일 전했다.

아이르랑가 하르파르포 경제 조정부 장관은 22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이란 간 합의로 중동 지역 긴장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동 분쟁이 여전히 세계 경제에 지정학적·지경학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를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외부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준비한 경기 부양책 규모는 총 26조3천4백억 루피아(약 14억7천만 달러)다. 가장 큰 비중은 식량 지원에 배정됐다. 정부는 3분기 동안 3,324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kg의 쌀을 무상 지급할 계획이며, 이에 17조5천4백억 루피아가 투입된다.

또한 대두 가격이 정부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템페(tempe)와 두부 생산업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5천억 루피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식량 지원 예산은 총 18조4백억 루피아에 달한다.

다음으로 큰 예산으로 고용 확대를 위한 인턴십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총 6조2천6백억 루피아가 배정됐다. 이 가운데 4조1천4백억 루피아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10월 시작됐으며, 인턴에게 각 지역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을 지급해 일자리 창출과 가계 소비 유지를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다. 당초 10만 명 채용을 목표로 했으나 올해 15만 명으로 확대됐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에는 2조1천2백억 루피아가 투입되며,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22만 명과 해고 노동자 5만 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통비 지원과 세제 혜택도 연장한다.

국내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는 중간 휴가철 동안 전액 면제되며, 약 230만 명의 여행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한 조치는 연말 크리스마스와 신년 연휴 기간에도 적용돼 약 370만 명의 승객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간 및 연말 휴가철 동안 철도와 해상 교통요금에 대해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교통 지원 예산은 총 3,520억 루피아 규모다.

세계 부문에서는 작가를 대상으로 한 특별 소득세율을 신설해 기존 5~35%에서 1.5%로 대폭 인하했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이를 “쁘라보워 수비안포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액화석유가스(LPG)와 플라스틱 원료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도 연장된다. 현행 규정상 이들 품목에는 5~15%의 수입관세가 부과되지만, 정부는 플라스틱 원재료 가격 급등이 식음료 가격 상승 등 전반적인 물가 압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관세를 면제해 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과 이란·이스라엘 간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 부양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5.61%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이는 원자재 가격 호황에 힘입었던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장바구니, 5만 루피아로는 부족하다”

치솟는 식료품값에 허리 휘는 인도네시아 주부들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식료품 가격 상승의 부담이 커지면서, 가계 살림과 식생활을 책임지는 주부들의 어려움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17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경제적 압박과 소비심리 위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때 저소득층 가정의 하루 식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했던 5만 루피아(약 2.81달러)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특히 일정한 소득이 없는 가정일수록 부담이 더욱 크다.

반딧주 르박군에 거주하는 주부 수에다(52세) 씨는 이러한 현실을 매일 체감하고 있다. 수에다는 수요일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며 “이제 5만 루피아로는 몇 가지밖에 살 수 없고, 쌀까지 사야 한다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다행히 집에 쌀이 남아 있었지만, 오늘 쌀까지 사야 한다면 이 돈으로는 절대 부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수에다는 기본 식재료를 구입하는 데 모두 5만8,000루피아가 지출됐다. 구입한 품목은 식용유 0.5리터(1만 루피아), 쌀 250g(1만 루피아), 고추와 토마토(5,000루피아), 템페(5,000루피아), 달걀 250g(8,000루피아), 염장 생선(1만 루피아), 채소(약 1만 루피아) 등이었다.

예산 대부분이 기본 식재료 구입에 쓰이면서 생선이나 육류처럼 영양가가 높은 식품은 점점 사치품이 되고 있다.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가족의 식생활도 달라졌다. 수에다는 “템페는 두 끼로 나눠 먹고, 염장 생선은 아침과 저녁 반찬으



▲전통시장 [자료사진]

로 사용한다”며 “고추 가격도 너무 올라 지금 사는 양으로도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다. 삼발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널리 먹는 고추 양념이다.

수에다는 특히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가 상승이 더욱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고정급을 받는 사람들도 생활이 어렵다고 한다”며 “하물며 나처럼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겠느냐. 일이 있을 때만 품팔이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비공식 부문 종사자들은 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반면, 생활비는 계속 오르고 있어 식료품 가격 상승에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꼽힌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는 수백만 가구가 하루 5만 루피아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수에다의 이야기는 경제적 어려움이 단순한 통계 수치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플레이션과 구매력 약화의 여파는 이제 인도네시아 전통시장과 가정의 부엌, 그리고 식탁 곳곳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PT. DONG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 이래, 34년 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T. +62 21 440 3926
F. +62 21 440 3944

sales@dongjung.net
bhjangjkt@gmail.com
kenleejh@gmail.com

www.dongjung.net

“로봇도 옷 입는다” ...한세실업, 로봇 의류 수요 선점

국내 첫 로봇 의류 전시 ‘웨어 더 퓨처’ 운영 휴머노이드 의류 기준 확립 방열·고신축 기능성 의류 노하우 집약

“로봇이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 삶과 더욱 밀접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8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열린 휴머노이드 의류 전시 기자간담회에서 던진 화두다. 인공지능(AI)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산업 현장을 넘어 일상 영역까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류 기업 역시 이에 맞는 새로운 시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패션 리테일 기업 한세실업이 8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의류 전시 ‘웨어 더 퓨처(Wear the Future)’를 공개하고 휴머노이드 의류 시장 진출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익환 부회장과 손지연 R&D 본부 이사의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 이후 전시회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김 부회장은 “휴머노이드 의류 시장은 아직 누구도 개척하지 않은 미래 산업”이라며 “한세실업이 선도 기업으로 자리잡겠다”고 말했다. 한세실업은 최근 수년간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 도입에 적극 투자해왔다. 2019년 국내 의류 업계 최초로 버추얼 디자인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3D 가상 샘플 제작 기술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0만장에 달하던 실물 샘플 생산량을 30만장 수준으로 줄이며 생산 효율을 높였다. 2023년부터는 R&D 부문 내 AI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디자인 전 과정에 AI를 적용하고 있다.

한세실업은 다음 단계로 휴머노이드 의류 시장을 지목했다. 후 AI 휴머노이드가 산업 노동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교사와 간호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휴머노이드가 사람과 가까운 공간에서 활동하게 될 경우 역할에



▲손지연 이사가 휴머노이드 의류 디자인 방향성을 설명하고 있다.

맞는 의류 수요도 함께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류의 방향성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손지연 한세실업 R&D 본부 이사는 휴머노이드 의류의 핵심 요소로 ▲움직임과 보호 ▲기능성 ▲개성을 제시했다.

손 이사는 “휴머노이드 의류는 사람 옷을 단순히 변형하는 개



념이 아니라 구조와 역할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새로운 디자인 영역”이라며 “다만 기술적으로는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

기보다 한세실업이 축적해온 기능성 의류 기술을 미래 환경에 맞게 재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질의응답에서는 휴머노이드 상용화 시점과 이에 따른 의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휴머노이드 의류 시장이 로봇 보급 확대와 맞물려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산업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저가형 모델은 현재 2만 달러 이하 수준까지 가격이 낮아졌다”며 “수년 내 가정마다 1~2대의 휴머노이드를 보유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휴머노이드를 타깃으로 한 소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상용화 시점에 맞춰 즉시 의류와 소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시회 투어도 진행됐다.

투어 이전 한세실업이 제작한 의류를 착용한 로봇이 춤을 추는 시연도 이어져 현장감을 높였다.

전시는 ▲교육 ▲돌봄 ▲산업 ▲서비스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한세실업은 각 환경에 따라 휴머노이드 의류의 역할과 디자인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위압감을 낮추고, 돌봄 현장에서는 친밀감과 청결성을, 산업 현장에서는 내구성과 작업 효율성을, 서비스 분야에서는 친근한 이미지를 구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전시에는 한세엠케이의 신규 브랜드 ‘더 비 아카이브(the B Archive)’도 참여했다. 버커루 헤리티지에서 출발한 더 비 아카이브는 스트리트 미니멀리즘을 기반으로 빈티지 무드와 핑크·록 감성을 결합한 브랜드다.

한편 이번 전시는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된다. 관람객들은 교육·돌봄·산업·서비스 등 휴머노이드의 주요 활용 분야를 주제로 한 의류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프라보워 대통령, 외국인 투자 현황 공개 지시... 투명성 및 신뢰 제고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로산 로에슬라니 투자 및 하류화부 장관 겸 BKPM 청장, 그리고 단란타라 투자관리기구(BPI) 청장에게 인도네시아로 유입되는 최신 외국인 투자 데이터를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정부의 투명성 강화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신뢰 증진을 위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로산 장관은 이 보고를 통해 국

제 사회의 신뢰 증가와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 관심 고조와 관련된 다양한 투자 성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테디 인드라 위자야 내각 비서관은 성명에서 “대통령께서는 투자 및 하류화부 장관이자 단란타라 BPI 청장으로부터 미국 및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국가 방문 결과를 보고받으셨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 증가를 보여주는 유효한 사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주요직장관과 회동하고 있다.

과 데이터를 제시하며, 이는 다양한 국가 전략 부문에 대한 높은 관심과 투자 유입으로 반영된다”고 덧붙였다.

테디 비서관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은 로산 장관에게 외

국인 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과 관련된 긍정적인 데이터를 대중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는 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글로벌 역학 속에서 인도네시아의 투자 전망과 경제 성장에 대한 대중의 낙관론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스크린 골프 1등 설치 업체

설치업체 : 신발, 의류공장 기숙사 / 탄광, 발전소 현장사무소 / 개인주택 / 고급별장 / 아파트, (영업용) 루프, 대형빌딩, 백화점

착한가격/완벽한 시공/신속한 A/S

인니 최초 스크린골프(16년차)시장 개척중
인니 전지역 (200대 이상 설치) 풍부한 노하우
영업점: 롯데에비뉴 5층, 땅그랑, 버카시
신속한 A/S팀 운영중
이용료없이 무제한 사용가능

직원 복지용(다용도) 스크린룸 활용

다양한 골프연습 모드가능
직원간 화목한 스크린게임 이용
영화감상/노래방/운동경기 관람
온라인 화상회의 가능

특별 할인 행사 중고제품 1대 : 99 juta

WA / Call : 0815 7456 8000 (Mr Lee Jung Gi)
Email : vgolf03651@gmail.com
Kakaotalk : golf 03651



Vinatex는 시장 변동 속에서 14.4% 이익 증가 베트남 섬유 및 의류 그룹... 2026년 상반기에 긍정적인 사업 실적 기록 연결 순이익...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



▲베트남 섬유 및 의류 그룹에서 수출용 섬유 및 의류를 생산하고 있다. 사진: V.Ha

6월 12일 오후 사업 실적 발표 기자회견에서 베트남 섬유/의류 그룹(Vinatex)의 까오 후 히에우 사장은 그룹의 연결 매출이 9조 7,690억 VND로 2025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으며 연간 계획의 46%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결 순이익은 약 7,630억 VND로 14.4% 증가했으며 연간 계획의 55%를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비나텍스 경영진에 따르면, 이는 세계 시장의 예측 불가능한 변동에 직면한 섬유 및 의류 산업 상황 속에서 고무적인 결과다. 특히, 원사, 염색, 의류 제조부터 인프라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그룹의 생산 사슬 내 모든 부문에서 수익을 내고 있으며, 손실을 보는 사업부는 하나도 없다.

섬유 산업은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수익은 작년 동기 대비 거의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현재 이 분야는 연간 수익 목표의 80% 이상을 달성했으며, 시장 상황이 우호적으로 유지된다면 3분기에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의류 산업은 약 7~8%의 성장률을 유지하며 시스템 내에

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부문으로 자리매김했다. 염색 산업 또한 상반기 이익이 2,000억 VND를 돌파하며 연간 목표치인 2,510억 VND에 근접하는 등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다. 히에우 씨는 “시장에 불리한 변동이 없다면 올해 염색 산업의 이익은 약 3,000억 VND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긍정적인 사업 실적과 더불어, 전체 직원의 평균 소득은 월 1,230만 VND에 달해 작년 동기 대비 약 12% 증가했다.

시장 동향을 평가하면서 비나텍스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시장의 수요가 약화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베트남 섬유 및 의류 산업은 생산 관리 능력, 비용 통제,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명성 덕분에 많은 경쟁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반기에는 고기압이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나텍스 경영진은 가장 큰 어려움이 남은 기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오 후 히에우 씨에 따르면, 원사 업계는 현재 8월과 9월까지 주문을 확보했지만, 원면 가격 상승과 원사 가격 하락세로 인해 수익 마진이 줄어들고 있다. 의류 업계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이 8월이나 9월까지 주문을 받았지만, 4분기 주문은 아직 대부분 협상 단계에 있다.

히에우 씨는 “고객들이 베트남과 미국의 관세 협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의류 업계는 4분기 수주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약 150일 동안 지속되는 “주문 기간”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7월부터 많은 기업들이, 특히 미국 시장에서 주문 처리 속도가 둔화되었다고 보고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해상 운송 비용이 30~40% 증가했으며, 보험료, 항로 변경, 화물 검사 등과 관련된 추가 요금도 발생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물류 비용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많은 주요 경제국에서 인플레이션을 심화시켜 섬유와 같은 비필수 품목에 대한 소비자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더불어 미국의 관세 정책은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다. 특히 워싱턴은 7월 24일까지 10%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무역 조사에도 착수했다. Vinatex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여러 섬유 수출국과 양자 관세 협정을 협상 중이다.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는 약 19%의 관세율을,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는 20%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베트남도 이와 유사한 관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베트남이 불리한 입

장에 놓이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

세금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많은 미국 수입업체들이 신규 계약 체결을 미루고 있다. 미




국 소매협회 자료에 따르면 향후 두 달 동안 미국으로 수입되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약 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올해 첫 5개월 동안 미국의 섬유 수입량은 12.1% 감소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Vinatex는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10% 세율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7월 24일 이전에 생산 및 납품을 가속화하고 있다.

Vinatex 관계자들에 따르면, 2026년까지 섬유 및 의류 수출 목표액인 480억~49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업계 전체가 연말 마지막 7개월 동안 301억 9천만~311억 9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려야 하며, 이는 월평균 43억 1천만~44억 6천만 달러에 해당한다. 하지만 세계 시장에 여전히 많은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섬유 산업 부문에서 그룹은 소량 생산 방식으로 원자재를 구매하고 재고, 매출채권 및 운전자본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전기 요금 상승에 대응하여 에너지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VIETNAM.VN]



인쇄/출판 광개토
Kwanggaeto

인쇄

카다록 / 브로슈어 / 리플렛 / 신문 / 메뉴판
BOOK / 사용설명서 / 사보 / 회보 / 지명원
보고서 / 회사소개서 / 교재 / 각종 양식의
카렌다 / 명함 / 봉투 / 바인더 / 쿠폰 / 초대장
인박스 / 제품 패키지 /
스티커 / 라벨 / 행택 / 컴퓨터 커팅

021 3002 9087 021 3002 9091 / 9090
0858 9060 0962



PT. JASON LOGISTIC INDONESIA

글로벌 물류 전문 파트너

Your Professional Global Logistics Partner

장기적 비즈니스 성장을 함께하는 물류 파트너

-  Air Cargo
-  Sea Cargo
-  Warehouse
-  Customer Service



JASON 지사
중국: 상하이, 광저우, 선진, 샤이먼, 청도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
대만/한국

Ruko Gading Kirana Blok C10 No.10, Kel. Kelapa Gading, Kec.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Indonesia
Telp: 021-45855919 | Email : cs.team@jli.kr
한국담당자: 박치성 +62 821 1210 0051 | 현지담당자: HENDRA +62 898 1142 2911

인니 법무장관 “외국인 체류비자 ‘급행료’ 더 이상 없다”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 법률·인권·이민·교정 담당 조정장관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시 체류허가(KITAS) 및 영주체류허가(KITAP) 등 체류비자와 관련해 ‘급행처리’ 절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스릴 장관은 아구스 안드리안토 이민·교정부 장관이 취임 이후 이민 행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개선 조치를 시행해 왔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그는 이어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는 새 내각이 출범하고 이민·교정부가 신설된 이후, 그리고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이미 시행돼 왔다”며 “앞으로 이민 관련 서비스의 질이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부패척결위원회(KPK)가 지난 4일 실미 카림 이민·교정 차관을 외국인 체류허가 발급 과정과 관련된 부패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했다.

유스릴 장관은 과거 이민 당국 내부에서 외국인,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KITAS와 KITAP 발급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불법 관행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KITAS와 KITAP 발급은 노동부의 절차와도 연계돼 있는 만큼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며, “정상적인 절차라면 4~5일이 걸리는 업무가 급행료를 지불하면 1~3일 만에 처리되는 불법 관행이 생겨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급행료는 국고에 납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취 또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유스릴 장관은 이어 2024~2026년 이민·교정부 차관을 지낸 실미 카림과 다른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 법률·인권·이민·교정 담당 조정장관 [공식 프로필 사진]

이민 당국자들에게 제기된 부패 혐의와 관련해서는, 부패범죄처벌법상 이러한 행위는 갈취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패척결위원회가 해당 사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유스릴 장관은 실미 카림 관련 사건이 그가 2023년 이민청장으로 재직하던 시기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구스 안드리안토 장관 취임 이후에는 이민 분야의 각종 불법 수수료 관행이 지속적으로 근절되고 있으며, KITAS와

KITAP를 1~3일 만에 처리해 주는 대가로 별도의 비용을 받는 제도도 완전히 폐지됐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는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신청은 규정에 따라 4~5일 내 처리되고 모든 수수료는 국고에 납부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KPK는 실미 카림을 비롯한 7명의 부패 사건 피의자가 2022~2026년 이민국에서 외국인 체류허가 발급 과정과 관련한 갈취를 통해 총 1,455억 루피어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KPK의 세트요 부디안토 위원장은 지난 4일 자카르타 KPK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확인된 최소 금액은 1,455억 루피아”라고 말했다. 세트요 위원장은 이 돈이 외국인 본인이나 체류허가 신청을 대행업체, 또는 외국인을 후원한 스폰서들로부터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미국의 대인니 강제노동 관세 10%, 7월 24일 이후 시행 전망

미국이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부과하기로 한 10% 강제노동(Forced Labor) 관세가 기존 수입관세와 중복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오는 7월 24일 이후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발표를 인용, 5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최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품에 대한 규제 실태를 조사한 뒤 인도네시아에 대해 새로운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Trump 2.0)는 강제노동 관련 수입금지 조치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실효성 있게 집행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1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는 관련 규정은 마련했지만 충분히 집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됐다.

이번 무역법 301조(Section 301) 조사와 신규 관세 부과 문제는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제미슨 그리어 대표간 회담의 핵심 의제였다. 두 사람은 인도네시아가 가입을 추진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련 회의 참석차 파리에 머물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10% 관세는 이른바 ‘글로벌 관세(global tariffs)’가 종료되는 7월 24일 이후 발효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이후 지난 2월 임시 조치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으며, 이 조치는 150

일 동안만 유지돼 오는 7월 24일 종료된다.

경제조정부는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강제노동 관세의 시행 시점을 조정된 것은 현재 적용 중인 임시 10% 글로벌 관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미국 내 법적 절차를 고려해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또한 미국이 자국이 제안한 18개 품목의 관세 예외 적용인(product exclusions)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외 적용이 승인될 경우 수출 비용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해당 18개 품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이 강제노동 조사에 착수한 지 약 한 달 뒤인 4월 중순, 인도네시아 부디 산토소 무역부 장관은 강제노동과 연계된 수입품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했다. 미국 역시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이 규정을 언급했지만, 인도네시아가 실제로 관련 물품에 대한 조사나 압수 조치를 실시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이를랑가 장관의 보좌관인 하료 리만세토는 앞서 자카르타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관세 발표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국과 “건설적인 방식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미국과 관세 관련 합의에 도달한 국가 가운데 하나다. 이 합의 덕분에 인도네시아는 12.5% 대신 10%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월간 KOGA지 광고를 제안합니다.

월간 봉제신문 KOGA지는 봉제 관련업체의 영업과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요

주요대상 : 봉제관련 기업 및 자재, 장비, 기타 관련업체
광고매체 : 봉제신문 KOGA지(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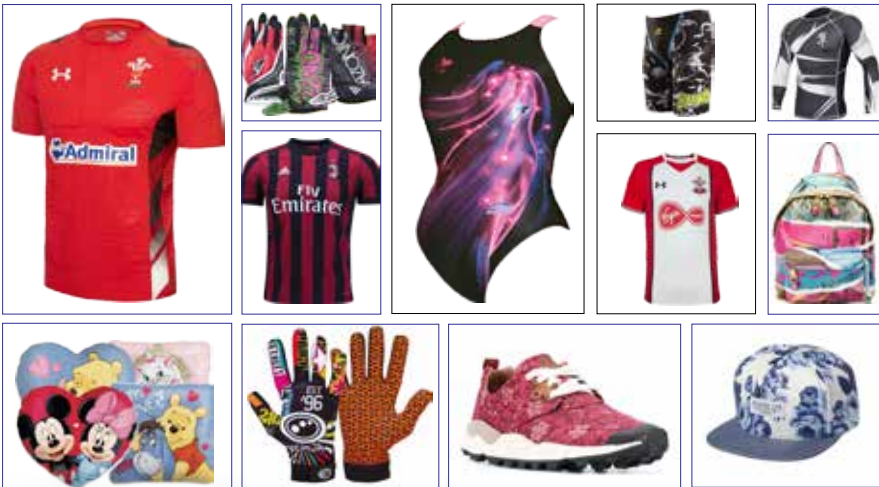
1) KOGA지는 봉제협회 전 회원사에 다이렉트 메일로 매월 발송되며 관련 기업 약 300여업체 대표님과 그 직원 모두에게 매체 도달률 100%, 가독률 100%의 전문 소식지입니다.

2, 광고 상품안내

연간(12회) 계약 혜택 :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3, 연락처 및 문의처

021-3002 9090/91 0821 1122 8827 (Mr. Kang)
이메일 : khong3000@gmail.com



PT. PARAN INTERNATIONAL
Garment and Digital Sublimation Printing

파란은 “디지털 승화전사 날염” 이란 신기술을 그 태동시부터, 폐사의 의류제작에 직접 적용하여, 대부분의 복종 및 원단특성에 알맞은 최적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방식의 프린팅 기술은 눈부시게 달라지는 트렌드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최신의 날염방식입니다.

환경친화적이면서 화려한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표현이 가능하고 스포츠웨어, 아웃도어웨어, 피트니스웨어 등에 적합하며 의류에 높은 견뢰도를 보장하는

최고의 품질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혁신적 기술입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적용 가능품목

실내수영복, 비치웨어, 피트니스웨어, 레저복, 자전거복, 장갑, 유니폼, 팀복, 쿠션, 모자, 가방, 운동화 등

Kawasan Industri Jatake Jl. Industri Raya III Blok AC/80, Kel. Bunder
Kec. Cikupa Kab. Tangerang Banten – Indonesia 15710
Telp : (021) 590 5021 Fax : (021) 590 5023
Email : ys.paran@gmail.com
website : www.paranint.com
박용상 : 0815 1902 4176



홍삼볼, 인도네시아 시장 공식 진출...카페인 0% 건강 에너지 음료 선보여



▲홍삼볼 인도네시아 런칭기념 골프대회. 2026.6.13.

홍삼볼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공식 진출했다.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카라와치 소재 임페리얼 골프 클럽에서 개최된 ‘2026 홍삼볼 오픈’ 행사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의 공식 론칭을 알린 것이다. 이번 행사는 홍삼볼을 ‘한국의 건강 에너지 음료’로 소개하며, 천연 홍삼의 효능을 현대적이고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과 결합한 제품임을 강조했다.

시중의 일반적인 에너지 음료와 달리 홍삼볼은 한국산 홍삼의 천연 효능을 바탕으로 제조되며 카페인 함유량이 0%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자연스러운 에너지 공급원을 제공하면서도 일상 활동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2026 홍삼볼 오픈’ 골프 행사에는 수백 명의 골퍼가 참가했으며, 인도네시아의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도

대거 참석했다. 서에리아, 웬디 가구르, 탄타 킨팅, 아디파티 돌켄 등 저명인사들의 동참은 대회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인도네시아 골프 커뮤니티 내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홍삼볼 인도네시아의 송창근 회장은 “건강을 중시하는 에너지 음료 시장으로서 인도네시아가 지닌 잠재력이 크다”며 “홍삼볼을 통해 단순한 에너지 전달을 넘어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웰빙과 일상 생



▲홍삼볼 인도네시아 런칭기념 행사장에서 송창근 회장(오른쪽)과 신태용 감독(왼쪽) 2026.6.13.

산성을 뒷받침하는 음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의 열기는 공동대표 신태용 감독의 참여로 더욱 고조되었다. 신 감독은 지친 기력 회복과 퍼포먼스 유지를 위해 일상적으로 인삼을 섭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탄트리 샬린드리 이찰사리와 자카르타 전 주지사인 바수키 하자 푸르나마 등 홍삼볼 홍보대사들이 제품의 효능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현지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였다.

이번 론칭 행사는 ‘아이스 브레이크킹(Break the Ice)’으로 마무리되며 인도네시아에서의 홍삼볼 여정의 첫 발을 뒀다. 홍삼볼은 이번 진출을 계기로 한국산 홍삼의 우수한 효능을 더 넓은 범위의 대중에게 알리는 한편,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에게 보다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의 중요한 선택지가 되겠다는 다짐을 재확인했다. (한인포스트)

현대트랜시스, 인도네시아서 장애인 채용 앞장 ‘고용 평등’ 주목

장애인 정규직 채용으로 현지 상생 행보 강화 아세안 생산거점 ESG 경영으로 브랜드 신뢰 제고

현대트랜시스가 인도네시아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며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을 통해 현지 브랜드 제고로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인도네시아 전국노동조합연합 ‘SPSI(Serikat Pekerja Seluruh Indonesia)’ 베카시(Bekasi) 지역 지부에 따르면 현

대트랜시스 인도네시아법인은 최근 지체 장애를 앓는 아디타 바구스 페르마나 씨를 정규 인력으로 채용했다. 자동차 경정비학과를 졸업한 신규 입사자는 불편한 보행 탓에 수차례 취업의 고배를 마셨으나 회사 측의 고용 평등 정책으로 현장 근무 기회를 얻었다. 현대트랜시스 인도네시아법인은 신체적 제약보다 개인의 잠재력과 직무 역량을 우선하는



▲현대트랜시스 인도네시아법인은 최근 지체 장애를 앓는 아디타 바구스 페르마나 씨를 정규 인력으로 채용했다. (사진=인도네시아 전국노동조합연합 ‘SPSI’)

채용 기초를 적용해 최종 합격을 결정했다. 현장 직무 교육 직

후 곧바로 생산 라인에 투입된 해당 직원은 비장애인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독립적인 업무 소화력을 입증했다. 사측의 과감한 인재 발탁은 신체적 조건이 고품질 노동력 창출의 장애물이 아니라는 점을 현지 노동계에 각인한 선례로 평가받는다. 신규 근로자의 높은 업무 몰입도는 동료들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파급 효과도 낳고 있다는 게 노조측 설명이다. 인도네시아법인은 현대트랜시스의 첫 아세안 생산 거점이다.

현대트랜시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20년 말레이시아 자동차 부품사 ‘AAI’와 50대 50 지분으로 설립했다. 인도네시아 코타 델타마스 산업단지에 위치하며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에 주요 차종 시트를 공급한다. 현재 크레타와 아이오닉5, 아이오닉6, 스타게이저, 싘타페, 코나 EV, i10 등 모델 시트를 생산하고 있다. 물량 확대에 맞춰 EV5 등 신규 시트 개발을 병행하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596억원 수준이다.

PT. Indokon Multi Sarana

신뢰할 수 있는
비디오트론 솔루션 & 인테리어 시공
전문 기업

PT. Indokon Multi Sarana는 정밀한 기획, 프리미엄 자재, 그리고 전문적인 시공 기준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미적 가치, 높은 완성도를 갖춘 비주얼 및 공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선명한 디스플레이, 내구성 높은 시스템, 그리고 철저한 납기 준수를 실현합니다.

정부 기관을 비롯해 산업 단지, 오피스, 상업 공간, 공공 시설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IMS www.indokonmultisarana.com
(+62)21-2263-2551
PT. INDOKON MULTI SARANA Jakarta, Indonesia

PT. Indokon Multi Sarana는 실내·실외 비디오트론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No.1 선도 기업으로, 인테리어 시공 전문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민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전략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풍부한 경험과 탄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재훈의 세무상식

인도네시아 법인의 새로운 의무, 연차보고서(Laporan Tahunan) 제출 제도 시행

2026년 6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 법무부(AHU)는 모든 주식회사(이하 법인)를 대상으로 연차보고서(Laporan Tahunan) 제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번 제도는 「회사법(UU No.40 Tahun 2007)」 제66조 및 제78조와 「법무부장관령(Permenkumham) No.49 Tahun 2025」를 근거로 시행되며, 향후 인도네시아 법인의 각종 변경등기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많은 외국인투자기업(PMA)을 포함한 일반 법인들은 매년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이를 정부 시스템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해 모든 법인은 연차보고서 제출 여부가 공식적으로 관리되며, 미제출 시 각종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연차보고서 제출 의무의 법적 근거

회사법 제66조는 이사회(Direksi)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RUP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사법 제78조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연차보고서를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된 법무부장관령 No.49 Tahun 2025는 이러한 회

사법상 의무를 실제 행정절차와 연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회사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내용을 AHU(법인행정시스템)에 공식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모든 법인이 제출 대상

이번 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상장회사나 대기업법 아니라 일반적인 PMA 법인과 로컬 법인까지 모두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다.(주식회사 PT는 모두 적용 대상) 연차보고서는 공증인(Notaris)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공증인이 작성한 연차보고서 공정증서(Akta Laporan Tahunan)를 AHU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향후 주주 변경, 이사·감사 변경, 증자·감자, 정관 변경 등 회사의 법적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연차보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회사는 사실상 각종 법인 변경 절차가 제한될 수 있다.

외부감사 대상 여부에 따른 제출 서류 차이

연차보고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회사가 외부감사 의무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함께 회사 활동보고서, CSR 보고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감독보고서,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현황 등 보다 상세

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일반 중소기업이나 외부감사 비대상 회사는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다만 최소한 다음의 재무제표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한다.

- 재무상태표(Balance Sheet)
 - 손익계산서(Profit and Loss Statement)
 - 현금흐름표(Cash Flow Statement)
 - 자본변동표(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
 - 재무제표 주석(Notes to Financial Statements)
- 따라서 그동안 세무신고 목적으로만 간단한 재무제표를 작성해 온 일부 기업들은 향후 보다 체계적인 회계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11월부터 행정제재 적용

법무부는 2026년 11월부터 행정제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제재 내용은 단순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회사 변경 절차를 진행할 경우 AHU 시스템상 경고(Teguran Tertulis)가 표시될 수 있으며, 향후에는 AHU 시스템 및 OSS 시스템 접근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AHU와 OSS는 사실상 필수 시스템이므로, 접근

제한은 신규 투자, 사업확장, 허가 변경 등 다양한 기업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제도를 단순한 행정절차의 추가로 보기보다 기업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최근 2~3년간 정기주주총회(RUPS)가 적법하게 개최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25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셋째,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경우 감사보고서 발행 일정과 연차보고서 제출 일정을 사전에 조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향후 주주 변경이나 이사 변경 계획이 있는 경우 연차보고서 제출을 우선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맺음말

이번 연차보고서 제출 제도는 단순한 서류 제출 의무를 넘어 인도네시아 정부가 법인의 운영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특히 2026년 11월부터 행정제재가 시행될 예정인 만큼, 우리 기업들도 사전에 준비하여 향후 법인 변경이나 투자 활동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적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필



김재훈 대표

요가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기업 경영의 핵심은 단순한 세무 신고뿐 아니라 법인 행정(Company Compliance)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준법경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번 연차보고서 제출 의무 역시 그러한 변화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력 및 경력

-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 C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sa Hukum Pengadilan Pajak)
-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 현, 코참 국제자문관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 저서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TEL : 021 522 2739
kimjhoon@bngconsulting.co.kr

저가 생산의 시대 끝났다...국제의류연맹, 공급망 재설계 선언

과잉생산 · 재고 · 할인 손실 줄이는 '스마트 유연성' 이 핵심 의제

국제의류연맹(IAF)이 글로벌 의류 제조업의 경쟁 기준을 다시 정의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의류산업의 손실은 공장 생산단가 자체보다 과잉생산, 초과 재고, 할인 판매, 묵인 자본, 공급망 마찰에서 더 크게 발생한다는 진단이다. IAF는 이를 근거

로 브랜드와 제조업체가 '최저 단가' 중심의 거래 구조에서 벗어나, 수요에 맞춘 생산성과 자본 효율,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IAF 비즈니스혁신위원회가 최근 '스마트하고 생산적이며 지속가능한

의류 제조를 위한 선언문' 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글로벌 의류산업이 규제 강화, 기후 리스크, 디지털 전환, 소비 수요 변동이라는 복합 압박을 받고 있으며, 기존의 점진적 개선만으로는 구조적 비효율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 특히 수십 년

간 이어진 최저 단가 소싱은 브랜드에는 단기 원가 절감 효과를 제공했지만, 제조업체에는 수요 변동 리스크와 재고 부담, 투자 여력 약화를 전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다고 지적한다. IAF 선언문의 핵심은 '스마트 유연

성' 이다. 이는 생산, 기획, 정보, 인센티브를 실제 수요에 맞춰 조정하는 공급망 운영 능력을 뜻한다. IAF는 기존 의류산업이 대량 발주와 시즌 중심 거래에 의존하면서 과잉생산, 재고 누적, 할인 판매를 반복해 왔다고 진단한다. 2030년을 향해 의류 제조의 경쟁 기준은 최저 단가가 아니라 정밀성, 유연성, 자본 효율, 협업형 가치 창출 능력으로 이동하고 있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유성 종합건설

PT. YUSUNG JAYA ABADI

기술로 짓고
신뢰로 완성합니다.

건설 기계 전기 배관
정수 및 폐수처리시설

유성열 대표 : 0812 8037 0303

Ruko Tataca Puri Blok C1 No. 25 Jl.Raya CurugPos Bitung15810
yusungjaya1@hotmail.com / 021 598 0222



인도 폭염 공급망 강타...유니클로 등 생산성 최대 10% 하락 납기 · 품질 · 노동 안전 동시 압박...기후 적응 비용이 새 변수로



▲인도 의류 생산기지가 폭염으로 생산성 저하를 겪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폭염으로 인도 공급망 생산성이 최대 10% 떨어지며 품질 불량, 납기 차질 위험에 직면했다. 기후 위기는 노동 안전 문제를 넘어 글로벌 패션 공급망의 원가, 납기, ESG 관리 체계를 재검토하게 만

드는 핵심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리테일링, 마크스 앤드 스펜서, 테스코 등에 납품하는 인도 의류공장 일부에서 극심

한 고온으로 생산성이 최대 10%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계절성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패션 공급망의 원가 구조와 납기 관리, ESG 실사를 동시에 흔드는 물리적 기후 리스크로 해석된다.

뉴욕대 스텐 비즈니스 및 인권 센터는 최근 인도 4개 지역 10개 의류 생산시설을 조사한 결과 고온이 제품 품질, 납기 안정성, 결근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발표했다.

현장 관리자들은 폭염으로 인해 원단에 땀 얼룩이 생기거나 먼지 오염, 봉제 오류, 생산 중단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의류 생산에서 온도 문제가 노동자의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고, 품질 관리와 출하 일정까지 영향을 주는 비용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인도 의류산업의 취약성은 산업 규모 때문에 더 크다. 인도 의류 수출산업 규모는 약 390억 달러이며, 종사자는 4500만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여성 노동자 비중은 약 70%다. 인도는 방글라데시, 베트남, 캄보디아 등과 함께 글로벌 의류 생산의 핵심 축으로 꼽히지만, 최근 폭염 강도와 빈도가 높아지면서 노동집약형 생산 모델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올해 인도 일부 지역은 45°C를 넘는 폭염을 겪었고, 5월 우타르프라데시의 한 지역에서는 48.2°C가 기록됐다.

문제는 공장 내부의 체감 위험이 외부 기온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점이다.

코넬대학교 글로벌노동연구, 국제금융공사(IFC), 국제노동기구

베터워크가 공동 작성한 보고서는 열 스트레스를 평가할 때 기온 뿐 아니라 습도와 복사열을 반영한 WBGT 지수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폭염은 노동 안전 문제이면서 동시에 납품 리스크다. 연구를 이끈 루시 시어스 뉴욕대 스텐 경영대학원 선임연구원은 공급업체들이 임시방편으로 버티고 있지만, 납기 지연이 발생하는 순간 바이어를 더 이상 보호하기 어려운 전환점에 도달한다고 설명했다. 세계은행은 극심한 더위로 인한 노동시간 감소가 2030년까지 인도 경제에 상당한 손실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 산업에서 발생하는 생산 차질 규모는 인도 GDP의 최대 4.5%에 해당하며, 금액으로는 약 1500억~25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

이번 설문에 응한 글로벌 고객사 대부분은 폭염이 생산에 미치는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공급업체에 공장 온도 측정을 요구한 비율은 35%에 그쳤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2년도 안 남았는데”...베트남 섬유업계, DPP 대응 ‘사실상 제로’

유럽 수출 제조업의 핵심 생산기지인 베트남에서도 디지털제품여권(DPP) 대응 체계가 사실상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베트남플러스는 자국 섬유업계가 섬유·의류 제품에 대한 EU 디지털제품여권 적용을 앞두고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EU는 2024년 지속가능제품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발표한 뒤 품목별 시행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섬유·의류 분야는 2028년 전후 적용이 예상된다. 유럽 시장에 수출하려면 제품의 원료와 생산지, 탄소배출량, 재활용 정보 등 공급망 전 과정의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2년도 안 남았는데”...업계 “사실상 제로”

베트남 국립대 하노이 경제경영대학의 원형섬유정책 전문가 찌콩진은 “2028년 중반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업계는 사실상 제로에서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베트남 섬유·의류 산업은 아직 산업 차원의 디지털 역량 체계나 통합 디지털화 전략을 구축하지 못한 상태다.

섬유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일 기관 호엔슈타인(Hohenstein)의 베트남 법인 대표인 팜티응옥투옌은 디지털제품여권이 2030년까지 전 세계 1조 개 이상의 제품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베트남 섬유업계가 EU 디지털제품여권(DPP) 적용을 앞두고 공급망 데이터 관리 과제에 직면했다. / 출처 = Unsplash

이 가운데 섬유·의류 제품은 약 625억 개에 달한다. 규제 적용 범위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

거래쳐 10곳 대응에 플랫폼 6개... 공급망 데이터가 발목

베트남 데님 제조업체 비엠흥데님(Viet Hong Denim)의 응우옌티짜우씨는 거래쳐 10곳을 관리하려면 공급망 데이터 수집과 제출을 위해 최대 6개의 서로 다른 플랫폼을 사용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쳐마다 요구하는 데이터 형식과 관리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제품을 납품하더라도 브랜드별로 요구하는 정보와 제출 방식이 달라 기업들은 여러 시스템을 동시에 운영해야 한다.

EU가 요구하는 것도 단순한 제품 정보가 아니다. 원료가 어디서 왔고 어떤 공정을 거쳐 생산됐는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과 수자원 사용량은 얼마인지 등

을 제품 단위로 입증해야 한다. 공급망 전반의 데이터가 연결되지 않으면 제품별 이력을 제출하기 어려운 구조다.

“규제가 아니라 수주 조건”...선제 대응 기업이 경쟁력 가른다

재활용 소재 기업 사이어(Syre)의 응우옌마이한은 “디지털제품여권은 단순한 규제 의무가 아니라 상업적 경쟁우위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이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급망 투명성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반영하기 시작했다. 제품의 원산지과 생산 이력, 환경 정보를 입증할 수 있는 기업이 수주 경쟁에서 유리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출처 : IMPACT ON(임팩트온)

KYUNGWON is writing the history of Korean air compressors
KYUNGWON Compressor is manufactured in Korea with 100% Korean Technology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
한국직영점: (주)동부경원세기
 TEL: +82-2-465-6308 / 3884 박용환 대표: +82-10-5345-2884
 Email: dbkw2000@hanmail.net Web Site: www.dbkw2000.com
인도네시아 대리점: PT.KYUNGWON ARIM INDONESIA
 공장 및 사무실: JL. Niaga Industri Blok QQ2 Nomor 11 Kawasan Industri, Jababeka Phase 2, Desa/Kelurahan Pasirsari, Kec. Cikarang Selatan, KAB. Bekasi, Provinsi Jawa Barat
 TEL: +62-21-8926-1370 **전상규 법인장: +62-822-5818-8770**
 Email: dbkw2000@gmail.com



KYUNGWON COMPRESSOR GENUINE PARTS

형제&C, 日·中·伊 잇고 개성공단 TF까지...글로벌 공급망 구축

일본 홈쇼핑 진출 확정... 8월 발주·11월 론칭 개성공단 재가동 대비 생산체계 복원 착수



▲형제&C의 캐리스노트가 연내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다. 일본 홈쇼핑시장 진출을 위해 8월 발주, 11월 론칭 등 수순을 밟는다.

형제&C(대표 최혜원)가 일본·중국·유럽을 연결하는 글로벌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프리미엄 홈쇼핑 진출을 눈앞에 둔 가운데 중국 현지 네트워크 구축, 이탈리아 기능성 소재 기업과의 협력, 나아가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비한 전담 태스크포스(TF)까지 출범시키며 생산과 소재, 유통을 아우르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나섰다.

최근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일본 시장 진출이다. 형제&C는 일본 패션 전문기업 패션넷과의 협력을 통해 오는 8월 상품 발주를 시작으로 11월 현지 론칭을 추진한다. 최근 일본 패션넷 관계자들이 서울 본사를 방문해 캐리스노트 컬렉션을 직접 점검하고 바이팅 계획과 판매 전략을 최종 협의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일본 진출의 핵심 무대는 일본 최대 규모 프리미엄 홈쇼핑 채널 가운데 하나인 숍채널(SHOP CHANNEL)이다. 연간 6조~7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일본 TV홈쇼핑 시장은 품질과 브랜드 신뢰도를 중시하는 소비 특성이 강하다. 형제&C는 캐리스노

트의 'Young & Luxury' 콘셉트와 프리미엄 소재 경쟁력을 앞세워 일본 어덜트 여성 고객층을 공략할 계획이다. 홈쇼핑을 시작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망 확대도 추진한다. 단순 수출을 넘어 일본 현지 유통 네트워크를 확보해 장기적인 브랜드 정착을 노리는 전략이다. 판매 거점 확보와 함께 형제&C는 미래 생산기지 구축에도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남북 경제협력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개성공단 전담 TF를 출범시키고 생산체계 복원 준비에 착수했다. TF에는 과거 개성공단 운영 경험을 보유한 핵심 인력이 대거 참여했다.

대표적으로 토탈 셔츠 브랜드 제작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며 개성공단 생산 경험을 쌓은 양홍열 영업본부장이 전면에 배치됐다. 또한 과거 평양과 남포, 개성공단 등에서 생산 경험을 보유한 형지엘리트의 노하우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형제&C가 개성공단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생산비 절감 때문만은 아니다.

현재 일부 물량을 생산하고 있는 미안마 등 해외 생산지와 비교할 때 한국과 가까운 입지 덕분에 리드타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부터 생산, 물류, 매장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면서 최근 패션업계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반응생산과 리오더 대응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특히 최근 패션시장이 소량·다품종 생산 구조로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은 생산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으로 평가받는다. 재고 부담

을 줄이고 시장 반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활용 가치가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형제&C는 개성공단을 단순 생산기지가 아닌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 거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유럽의 카르비코가 제공하는 친환경·기능성 소재, 형제&C의 기획 및 디자인 역량, 일본 홈쇼핑과 유통 네트워크, 그리고 향후 개성공단 생산 인프라가 결합할 경우 생산부터 소재, 유통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업계는 남측의 소재·기획 역량과 북측의 숙련된 봉제 기술이 결합할 경우 품질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본과 유럽 시장 확대를 추진하는 형제&C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이 미래 생산 허브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형제&C 관계자는 "유럽 소재 협력, 아시아 생산 네트워크 구축, 일본 유통 확대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글로벌 옴니패션 기업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Create Well Life

CERAGEM

“건강한 척추관리가 바로 세월을 이기는 힘입니다!”

비만
만성질환개선
신경통

피로는 만병의 근원!

매일 올바른 척추관리는
활력넘치는 일상생활을 보장합니다

ECHOM 제도실시

Master V3를 가정에서 1개월동안
충분히 효능을 느껴보시고 결정하세요!

위치 : Ceragem Tangerang center / Ceragem BSD center
문의처: LEE TAE JU 62 812 9276 7549 / MELINDA +62 858 8292 0201

2026년도 KOGA 연회비 수입현황 (01/01~06/30)

NO.	회원사명	입금일자	회장단	상임사	일반사	찬조금
1	ANUGERAH ABADI BERSAMA	2026.01.28			5 JT	
2	WOO SHIN GARMENT	2026.01.28			5 JT	
3	KAHO INDAH	2026.01.28			5 JT	
4	CITRA UNGGUL PERKASA	2026.01.28	20 JT			
5	UNGARAN INDAH BUSANA	2026.01.28			5 JT	
6	LEADERS WORLD	2026.01.28			5 JT	
7	SEYANG ACTIVEWEAR	2026.01.28			5 JT	
8	GOLDEN GARMENTS	2026.01.29			5 JT	
9	DAE DONG	2026.01.29			5 JT	
10	YEONHEUNG MEGA SARI	2026.01.29			5 JT	
11	GAYA MAKMUR	2026.01.29			5 JT	
12	ING INTERNATIONAL	2026.01.29			5 JT	
13	INKORDAN	2026.01.30		30 JT		
14	JM TECH	2026.01.30			5 JT	
15	DASAN PAN PACIFIC	2026.01.30			5 JT	
16	TAE WON INDONESIA	2026.01.30			5 JT	
17	MUTIARA BUSANA INDAH	2026.02.02	20 JT			
18	MYUNG SEONG MACHINER	2026.02.04			5 JT	
19	DREAMWEAR	2026.02.04			5 JT	
20	TP,INC TRADING JAKARTA	2026.02.05		30 JT		
21	GAYA INDAH KHARISMA	2026.02.05	20 JT			
22	SOLVE IT	2026.02.06			5 JT	
23	OROM CONSULTING	2026.02.06	20 JT			
24	MULTI WELL EMBROIDERY	2026.02.09			5 JT	
25	KNH GAMINDO JAYA	2026.02.09			5 JT	
26	MUARA TUNGGAL	2026.02.09			5 JT	
27	PT,SCENIC	2026.02.09			5 JT	
28	LIMANTARA INDAH MAKMUR	2026.02.09			5 JT	
29	BLUE ROSE NARADO	2026.02.10			5 JT	
30	ANUGERAH ABADI MAGELANG	2026.02.10			5 JT	
31	MINU GARMENT SUKSES	2026.02.10			5 JT	
32	HANSOL PLEATS	2026.02.10			5 JT	
33	C- SITE TEXPIA	2026.02.11			5 JT	
34	WINNERS INTERNATIONAL	2026.02.12		30 JT		
35	PERMATA GARMENT	2026.02.12			5 JT	
36	RINA JAYA GARMENT	2026.02.13			5 JT	
37	MAJUJEL	2026.02.13			5 JT	
38	GLOBAL BUSANA INTERNATIONAL	2026.02.13			5 JT	

NO.	회원사명	입금일자	회장단	상임사	일반사	찬조금
39	SJ CONSULTING	2026.02.18			5 JT	
40	ZIBEN INDONESIA	2026.02.20			5 JT	
41	WOORI SUKSES APPAREL	2026.02.21			5 JT	
42	BINTANG GLOBAL ABADI	2026.02.23			5 JT	
43	PURNAMA ASIH SUR	2026.02.24			5 JT	
44	KG FASHION	2026.02.24			5 JT	
45	DONG JUNG INDONESIA	2026.02.25			5 JT	
46	YB APPAREL	2026.02.25			5 JT	
47	PT, ACE	2026.02.25			5 JT	
48	DOOSAN CIPTA BUSANA JAYA	2026.02.25		30 JT		
49	DONG IL	2026.02.26			5 JT	
50	SUKWANG INDONESIA	2026.03.05		30 JT		
51	HOKI MACHINE INDONESIA	2026.03.05			5 JT	
52	UNICORN	2026.03.06			5 JT	
53	DOORI LESTARI GARMENT	2026.03.10			5 JT	
54	JUN H INDONESIA	2026.03.10			5 JT	
55	HESED INDONESIA	2026.03.17	20 JT			
56	DONG YANG NISUSINDO	2026.04.01			5 JT	
57	BANGUN MAJU LESTARI	2026.04.09	50 JT			
58	DAYUP INDO	2026.04.13			5 JT	
59	IMPIAN ANUGERA LESTARI	2026.04.16			5 JT	
60	KARYA TRI ABADI	2026.04.25			5 JT	
61	JS JAKARTA	2026.04.30		30 JT		
62	HARAPAN GLOBAL APPAREL	2026.05.04			5 JT	
63	YONGJIN	2026.05.04			3.5 JT	
64	SUNGBO	2026.05.04			5 JT	
65	YURI INDO APPAREL	2026.05.04			5 JT	
66	GLOBAL TRIMS CREATOR	2026.05.05			5 JT	
67	PETRASAKTI MADYATAMA	2026.05.07		30 JT		
68	SEYOUNG INDUSTRY	2026.05.08			5 JT	
69	PT,SUCI PINTAK	2026.05.18			5 JT	
70	PT,KOTEK INDAH	2026.05.20			5 JT	
71	INDO BOX UTAMA	2026.05.20			5 JT	
72	HANSAE	2026.05.21		30 JT		
73	TA GLOBAL INDONESIA	2026.05.26			5 JT	
74	KOREA VILENE	2026.06.05			5 JT	
75	DK INTERNATIONAL	2026.06.08			5 JT	
76	SAM SAM JAYA GARMENT	2026.06.10			5 JT	

PIS 2026, 전시장 구성 및 트렌드 포럼관 공개

515개사 참가... '테마형 공간' 으로 비즈니스 효율 높였다

- 515개사 참가 확정, 혁신 소재와 첨단 기술 한 자리에 -
- '3대 맞춤형 포럼관' 가동, 비즈니스 · 트렌드 콘텐츠 강화 -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최병오, 이하 섬산련)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섬유소재 전시회 '프리뷰 인 서울(PIS) 2026'의 플로어 플랜이 공개되었다. 올해 PIS에는 국내 267개사와 해외 11개국 248개사 등 총 515개사가 참가한다.

당초 430개사 규모로 전시를 계획했으나, 예상보다 높은 참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코엑스와 협의를 거쳐 동문 로비 등 전시 공간을 추가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85개사를 추가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메인 전시장인 코엑스 1층 A홀은 '액티브존(Active Zone)'으로 조성된다. 한국·중국·일본·대만·인도 참가업체들이 전시에 참여하며, 메인 트렌드 포럼관, 특별관인 살롱 드 PIS와 테크 스피어가 운영된다. 또한 개막식과 글로벌 포럼, 피칭 스테이지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개최돼 비즈니스 교류와 산업 정보 공유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시장 입구인 동문 로비의 '웰컴존>Welcome Zone'에서는 PIS 2026 로고 조형물을 통해 한층 확장된 PIS의 비전을 상징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중국관과 바이어라운지를 함께 운영해 국내외 바이어들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2층 더 플라츠(The Platz)는 '인스피레이션존(Inspiration Zone)'으로 조성된다. 한국과 중국 참가업체 전시와

함께 인스피레이션 포럼, 프레젠테이션, 바이어 카페테리아가 마련되어 보다 쾌적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층 컨퍼런스룸에서는 총 19회의 전문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으로 최신 시장 동향과 기술, 패션 트렌드 등 다양한 산업 정보를 공유한다.

'3개 트렌드 포럼관' 통해 만나는 참가기업의 혁신 소재 올해 PIS 트렌드 포럼관은 참가기업의 대표 아이템을 시즌 트렌드와 함께 큐레이션하여 바이어들이 혁신 소재와 제품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총 3개 공간으로 분산하여 구성된다.

A홀 입구에 조성되는 인텍싱월은 참가업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이다. 바이어들이 관심 분야에 따라 참가기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 효율적인 비즈니스 매칭을 돕는다.

메인 트렌드포럼관은 PIS 2026의 전시 콘셉트인 'CO-OP: Better Together'를 기반으로 ▲Co-Habit ▲Co-Evolve ▲Co-Crete 세 가지 트렌드 테마로 구성된다. 참가기업의 제품을 시즌 트렌드와 연계하여 새로운 소재와 기술, 디자인 방향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더 플라츠에 마련되는 인스피레이션 포럼관에서는 27/28 FW 시즌 트렌드 컬러를 제안하고, 참가기업 소재를 활용해 제작된 패션 완제품을 함께 전시한다. 이를 통해 관람

객들은 소재가 실제 패션 제품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직관적으로 확인하며 시즌 스타일링과 컬러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섬산련 관계자는 "참가기업의 우수한 소재와 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명할 수 있도록 전시장 동선을 설계하고

포럼관 콘텐츠를 한층 강화했다"며 "혁신 소재와 최신 패션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참가기업과 바이어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플로어 플랜의 자세한 내용은 프리뷰 인 서울

홈페이지(previewinseou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리뷰 인 서울 2026' 개요
전시회명 : 프리뷰 인 서울 2026 (Preview in SEOUL 2026)
기간 : 2026.8.19.(수)~8.21(금) (3일간)

장소 : <전시> 코엑스 A홀(1층), The Platz(2층), <세미나> E홀(3층)
전시규모 : 약 515개사 783부스 예정

전시컨셉 : CO-OP | Better Together ; 공영(共榮)

부대행사 : 개막행사, 전문 세미나, 글로벌 포럼, 피칭 스테이지, 테크관 투어 등

탄중브리옥항, 컨테이너 약 1만개 적체 원인은?

인도네시아 최대 항구인 자카르타 탄중브리옥항에 최근 1만여 개에 달하는 컨테이너가 적체돼 수입 물품이 원활하게 유통되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통관 완료 후 기업들이 반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고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청의 관료주의적 행정 지연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16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카르타 우타마 관세청장은 이날 국회 청문회에서 인도네시아 최대 항만인 탄중브리옥의 통관 절차는 국가 서비스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수입업체들이 화물 반출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항만 보관시설을 계속 이용하면서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항만에 묶여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항만 내 컨테이너 적체 증가는 통관 절차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화물 반출 승인서가 발급된 이후에도 많은 기업이 즉시 화물을 반출하지 않아 컨테이너가 항만에 계속 남아 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 탄중브리옥 항구 [팰린도 유튜브 캡처]

자카 청장은 특히 중국 자동차 업체인 BYD와 우링모터스(Wuling Motors)를 예로 들며, 이들 기업이 통관 승인을 받은 후에도 최대 3일 동안 항만의 임시 보관 시설을 계속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컨테이너는 2주 이상 항만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한때 항만에 거의 1만 개의 컨테이너가 그대로 쌓여 있었다"고 말했다.

관세 당국에 따르면 일부 기업은 외부 창고 수용 능력이 부족한 데다 항만 내부 보관 비용이 외부 민간 물류시설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컨테이너를 항만 안에 장기간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적체 사태는 항만 체류시간(dwel time) 증가가 산업용 원자재 공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의 물류 효율성과 공급망 회복력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달 초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심각한 컨테이너 적체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 탄중브리옥 항만을 직접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 약 3,100건의 컨테이너 관련 서류가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체류시간 증가의 원인이 돼 산업용 원자재 공급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컨테이너 적체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관세 인력을 증원하고 24시간 교대 근무 체제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푸르바야 장관은 "대기 물량이 약 500개 수준으로 줄어든 때까지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24시간 교대 근무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또한 항만 구역 내에 컨테이너를 과도하게 장기간 보관한 것으로 확인된 기업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는 동남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의 물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공급망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광범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데일리인도네시아]


www.cosmofamily.com





GFRP WIREMESH



GFRP REBAR

더 가볍게, 더 강하게.
인도네시아 최초 SNI 인증 GFRP 보강근 제조사.
부식 없는 철근 대체 솔루션
Cosmo GFRP Indonesia.

Office : Menara Bidakara 1, 21st Floor, Unit 2152 & 2156 Jl. Jenderal Gatot Subroto Kav. 71-73 Kelurahan Menteng Dalam, Kecamatan Tebet Kota Jakarta Selatan, DKI Jakarta 12870

Factory : Kawasan Industri Suryacipta City of Industry, Jalan Surya Madya XIV, Kavling I-67A3, Kabupaten Karawang, Provinsi Jawa Barat 41362

Tel. : +62 811 9630 8805
Email : jaydentyp@cosmogfrp.co.id

자바섬 정전 사태에 PLN, 석탄 확보 총력...전력 공급망 취약성 드러나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소 [자료사진=에너지광물부]

국영 전력회사 PLN이 연료 부족으로 자바섬 곳곳에서 순환 정전이 발생하자 석탄 조달을 서두르고 중간열량 석탄의 추가 확보에 나섰다. 세계 최대 석탄 생산국 가운데 하나인 인도네시아가 전력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다르마완 프라소조 PLN 사장은 정부로부터 공급 할당을 받은 석탄 생산업체들과의 계약 체결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다수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중간열량 석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일 “정부로부터 공급 물량을 배정받은 석탄 공급업체, 특히 중간열량 석탄 생산업체들과의 계약 체결을 앞당기고 있다”고 말했다. PLN은 또한 에너지광물자원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석탄 운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발전용 연료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흐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은 석탄 공급 차질로 인도네시아 최대 경제권이자 인구가 가장 많은 자바섬에서 순환 정전이 발생하자 PLN에 석탄 조달 체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다르마완 사장은 정전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PLN을 대표해 자바섬에서 순환 정전이 발생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태로 국민들이 겪은 불편과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전으로 기업도 피해

정전은 기업과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서부자바주 산업도시 까라왕에서는 한 번에 3~5시간씩 이어지는 순환 정전이 일주일에 최대 세 차례 발생하면서 상업 활동과 공공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카페와 커피숍, 관상어 판매업체들은 영업 중단으로 매출이 30~50% 감소했다고 호소했다. 현지 한 카페 관계자는 에스프레소 머신과 커피 그라인더, 에어컨 등 주요 장비를 정전 중 사용할 수 없어 메뉴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고객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관상어 양식업자와 수족관 업체들도 물 순환과 산소 공급 장치를 유지하기 위해 디젤 발전기를 가동하면서 운영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방정부도 피해

를 입었다. 까라왕의 한 마을에서는 전력 공급이 중단되자 주민 행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발전기를 임대해야 했다.

특정 발전용 석탄, 연간 2,000만 톤 공급 부족

정부는 발전소에서 널리 사용하는 발열량(GAR) kg당 약 5,200 kcal급 중간열량 석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바흐릴 장관에 따르면 PLN의 연간 석탄 수요는 약 1억5,400만 톤이다. 현재까지 약 1억3,400만 톤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약 2,000만 톤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석탄 부족 사태는 풍부한 석탄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국내 발전소가 필요로 하는 특정 품질의 석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간열량 석탄은 생산업체들이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수출에 집중하면서 국내 조달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석탄은 자바섬 주요 발전소로 순차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서부자바에서는 수랄라야, 펠라부한 라투, 론타르, 라부안, 자와 7, 자와 9·10, 인드라마 유 발전소에 공급되고 있으며, 동부자바에서는 파이톤 발전단지를 비롯해 램방, 파치탄, 탄중아와르아와르 발전소로 운송되고 있다. 정부는 또한 국내시장공급의무(DMO) 제도에 따라 PLN에 공급되는 석탄 가격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DMO 제도에 따라 PLN에 공급되는 석탄 가격은 톤당 70달러로 제한돼 있으며, 이는 국제 시세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현재 국제 유연탄 가격은 톤당 약 144달러, 인도네시아의 6월 기준 석탄가격(HBA)은 톤당 122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K-섬유’ 수출시장 확대...패션소재 수주상담회 SPT 개최

원사·원단 기업 103개사...국내외 바이어 2000여명 방문
국내 섬유패션 산업 공급망 경쟁력 제고...협력기반 확산

국산 프리미엄 섬유소재의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 산업통상부와 한국섬유수출입협회는 글로벌 패션소재 수주상담회 ‘2026 서울 프리미엄 텍스타일(SPT)’을 25일부터 26일까지 코엑스 2층 더 플라츠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는 SPT는 K-섬유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과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우리 국내 섬유기업이 개발한 고기능성·친환경 신소재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다양한 프리미엄 소재를 선보이는 자리다. 원사·원단 기업 총 103개사

가 참가하며, 휴고보스·랄프로렌·마이클 코어스·셰르보 등 글로벌 패션 브랜드 50여개사를 포함한 국내외 바이어 2000여명이 방문해 수주상담을 진행한다. 올해 SPT는 국산 소재의 활용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내 섬유패션 산업의 공급망 경쟁력 제고와 협력기반 확산이라는 의미를 더했다. 개막식 부대행사로 산업통상부가 참가기업들과 함께 ‘섬유·패션 상생협력 선포식 및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개최해 협력 방향을 구체화했다. 이번 MOU를 통해 수요처인 패션기업이 원사·원단 기업과 새로운 국산 소재를 개발함으로써



협력체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친환경·웰니스 라이프스타일 소재 ▲스포츠·아웃도어용 고기능성 소재 ▲트렌디 캐주얼 소재 등 3개 트렌드 테마 전시와 글로벌 소재 트렌드 세미나도 함께 진행됐다. 클로버주얼패션, 프랑스 프리미엄 비죤(Premiere Vision), 일본 파마푸드(Pharma Foods) 등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해 인공지

능(AI) 기반 패션산업 혁신, 2027 패션시장 전망, 글로벌 스포츠 아웃도어 소재 동향 등 최신 시장 정보를 공유했다. 최우혁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은 “SPT는 국내 섬유기업의 혁신 역량을 세계 시장과 연결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소싱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고부가·차별화된 섬유소재 개발을 뒷받침하고 국산소재 활용 확대와 섬유 패션산업간 협력 생태계 강화를 통해 우리 섬유패션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데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빠르고 정확한 명함제작
0858 9060 0962
021 5010 4614~5
pt.kwanggaeto@gmail.com



PT. BIC JAYA INDONESIA

작업환경측정(K3) / 근로자 건강검진(MCU) / 사내클리닉(In House Clinic)부문
인도네시아 정부(DEPNAKER) 대행기관

인도네시아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기관, 한국 기업들의 든든한 산업보건 환경 지킴이!



노동부 장관 BIC 방문 (2022.12)



노동부 차관 BIC 방문 (2023.12)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임명 (2024.5)



수하르토 대통령 BIC 주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관 지정 (1993~2007)

www.bicjayaindonesia.com

JAKARTA : Wisma Staco 6F, Jl. Raya Casablanca Kav. 18 +62 21 3049 0114 bicjaya.id@gmail.com
KOREA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57 부산 인도네시아센터(BIC) +82 51 365 0041 www.bic-korea.com



UTAMAKAN KESELAMATAN DAN KESEHATAN KERJA

BIC은

- 작업환경측정(K3)/산업보건 환경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최초 한국계 인도네시아 정부(노동부) 대행기관
-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근로자 10명 이상 고용업체 연 1회 작업장 환경측정/근로자 건강검진 법적 의무사항
- 한국에서 노동부 지정 산업보건기관 운영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기술, 노하우 축적
- 작업환경 측정, 근로자 건강검진, 사내 클리닉 (In House Clinic) 운영을 패키지로 일괄 수행
- 40여년간 한국에서 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 관광부, 노동부, 할랄청, 대표부 역할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각별한 협력관계 유지, 우리 기업들의 대 인도네시아 정부 애로사항 해결지원

주요 브랜드 2026 광고 촬영 스토리 당신의 옷장을 채울 옷은?

나이키, 틀을 벗어난 과감한 순간 '각본을 찢어라'
 나이키가 축구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담은 캠페인 '각본을 찢어라 (Rip the Script)' 를 공개했다. 나이키는 축구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 계산된 장면이 아닌, 선수들이 과감하게 선택하는 순간에 탄생한다고 믿는다. 이번 캠페인은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틀을 넘어 감각에 기반한 자유와 축구의 즐거움을 조명한다.

컨버스 X 콜리나 스트라다, 클래식 실루엣에 담은 뉴욕 감성
 스트리트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컨버스(CONVERSE)가 콜리나 스트라다(Collina Strada)와 함께한 첫 번째 컬렉션을 선보인다. 이번 컬렉션은 창의성이 자기표현의 가장 강력한 촉매제라는 두 브랜드의 공통된 믿음을 바탕으로, 컨버스의 아이코닉한 척 70을 콜리나 스트라다만의 유쾌하고 자유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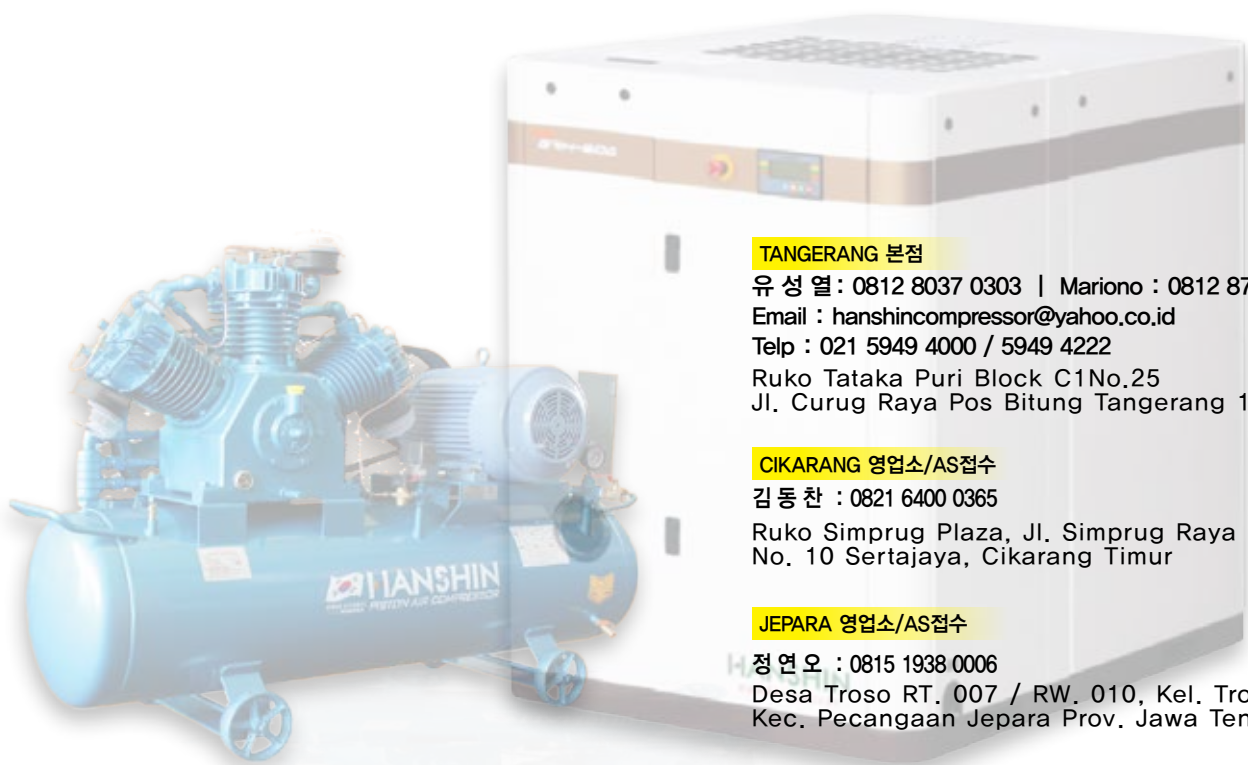
MLB키즈, 뜨거운 태양 아래 청량한 여름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패션 브랜드
 MLB키즈가 뜨거운 여름을 만끽할 수 있는 트렌디한 26SS 스웬웨어 화보를 공개했다. 아이들만의 자유로운 여름 스타일을 표현한 이번 화보는 해변을 배경으로 다양한 스웬웨어를 착용한 아이들의 청량한 비치 무드와 자유롭고 에너지 넘치는 여름 라이프스타일을 담았다.

캐나다구스가 바라보는 자연 속 직관과 감각
 캐나다구스는 일상 속 움직임과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위해 설계된 여름 2026 메인 라인 캠페인을 공개했다. 이번 컬렉션은 가벼운 레이어링 아이템들을 중심으로, 시즌을 대표하는 대담한 컬러로 이뤄졌다. 오가닉 코튼 저지, 테리, 피케 소재를 활용한 이번 컬렉션은 형태감을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HANSHIN

에어 콤프레셔



TANGERANG 본점

유 성 열 : 0812 8037 0303 | Mariono : 0812 8763 965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CIKARANG 영업소/AS접수

김 동 찬 : 0821 6400 0365
 Ruko Simprug Plaza, Jl. Simprug Raya Blok B2
 No. 10 Sertajaya, Cikarang Timur

JEPARA 영업소/AS접수

정 연 오 : 0815 1938 0006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